

나주혁신도시 인구유입책 시급

10명중 7명 “홀로 이주”... 당초 예상보다 6,000여명 줄어들 듯

감사원 “이주 인구 부풀려졌다” 지적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30%도 채되지 않아 인구 유입 대책이 시급하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동반 이주의향률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10명 중 7명은 ‘나홀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2006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광주·전남도와 협의해 마련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은 이전 기관 종사자 5천900명 모두가 오는 2012년까지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는 전제 아래 총 1만4천691명이 나주 공

동혁신도시로 옮겨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나주 혁신도시가 완성되는 2020년에는 공공기관 협력기관 이주 및 서비스 인구 등을 감안해 목표 인구를 5만명으로 늘여날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동반 이주의향률이 29.2% 밖에 되지 않아 직원 및 직원가족 이주자 수가 당초 예상자수(1만4천691명) 보다 6천여명이나 적은 8천467명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협력기관 종사자들은 이주에 따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가족 동반 이주율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혁신도시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따라 전국 11개 시·도에 조성되는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말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 지역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한군데 모아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공공기관 협력기관들을 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포함할 수 있는 대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의료 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며, 과학교나 외국어고와 같은 양질의 교육시설을 늘려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공동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17개)의 협력기관이 약 300여개에 달한 만큼 각 기관의 성격과 연관성을 감안한 주요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절실하다. 광주의 경우 태양에너지 사업 및 IT산업 등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공기관 협력기관을 발굴, 이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하면 기대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기획경영실장은 “혁신도시의 성공 여부는 인구의 유입에 달려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일상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교육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5만명의 신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협력기관 종사자들의 이전이 필수적인 만큼 협력기관에 대한 분석과 유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社告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2008년 3월 1일 오전 9시에 광주광역시 남구 남평동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완주메달과 완주증서, 완주선물(수첩, 수첩, 수첩)을 제공합니다. 참가신청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은 광주일보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062) 220-0544

- 일시 : 2008년 3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평동
 - 종목 :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접수 : 2008년 1월 15일부터
 - 문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전화: 062) 220-0544
- 주 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전남육상경기연맹, 한국마라톤 여행기획

오늘 한국의 밤... ‘원더풀 여수’ 펼쳐진다

여수엑스포 결정 D-4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위한 마지막 주말 총력전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3면)

유형직업 장려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iv.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i.ac.kr

우리나라는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제142차 세계박람회 기구(BIE) 총회를 4일 앞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한국대표단 최고 사령탑이 BIE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는 유치활동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파리에 도착, 한국대표단과 전략회의를 갖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BIE회원 가입국들의 지지성향 분석 및 현지 상황 점검에 나서는데

막바지 득표활동에 나선다.

한 총리는 르몽드를 비롯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어 이날 오후 7시부터는 파리의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BIE대표를 초청,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22일 파리에 도착한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날인 21일 막바지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해 파리에 온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 등 공식대표단과 함께 벨기에를 방문해 벨기에 주재 BIE대표들과 만나 여수의 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호소하고, 여수 지

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대표단은 25일 BIE총회에서 발표할 프리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을 갖는 등 총회가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정부와 지자체, 유치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상황 분석 및 전략회의를 통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 현대·기아차 그룹을 비롯한 기업관계자들도 현지 조지망을 점검하는 등 최종 유치전에 들어갔으며, 한국 대표단과 동행한 80여명의 여수지역 시민응원단도 깃발과 플래카드를 마련하고, 현지 교민 단체와 접촉을 갖는 등 민간 차원의 유치전을 시작했다.

여수박람회공동추진단

“계약서에 ‘BBK 이명박 소유’ 문구 있다”

김경준 모친 귀국... 오늘 ‘일본’ 검찰 제촉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김경준씨의 모친 김영애씨(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시가 이명박계약서 원본 등 관련 문건을 들고 23일 입국,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씨 이어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김경준씨의 모친 김씨는 22일 새벽 1시10분(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에 입국할 예정이다. 김씨는 입국 후 김경준씨의 변호사와 상의를 거친 후 검찰 측에 자료를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22일 MBC라디오에 출연, “계약서 4개 중 한글계약서에는 이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BBK주식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며 “한국어로 된 것(계약서)은 진짜 도장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innisfree